

어른 잘못에 방치된 3남매 '눈물의 삶'

이혼 절차 밟는 부모 외면
긴급생계자금도 부모가 관리
가끔 집 오는 아빠 잦은 폭력
방과후 알바해도 생활 막막
뽕뽕이 흩어질까 밤잠 설쳐
서연 들은 교육청 등 대책 모색

140여만 원(5인 가족 기준)이 지원됐지만, 이마저 모두 부모가 관리하며 3남매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남매는 부모에게 방치돼 살아간다 보니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서연이는 동생들에게 라면을 끓여 먹이는 게 전부였다. 가장 큰 문제는 한창 클 나이에 막내동생이다.

서연이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과 후 2시간씩 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미용일을 배우는 중학교 2학년 둘째 여동생도 밤 10시경 귀가한다. 막내동생은 누나들이 올 때까지 아동센터, 교회, 친구 집 등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 먹는 등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초 2학기를 앞두고 서연이는 스킨케어와 수학여행비, 교재비를 마련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갔다. 이 사실을 안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학여행비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일시적인 도움일 뿐 3남매가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3남매의 상황은 막내동생 때문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 5월 잘 씻지 않고 자주 지각하는 막내동생을 본 담임교사는 아동학

대(방임)를 의심하고 서연이 담임교사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동 주민센터에 연락했다. 서연이의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보니 분뇨와 부패한 음식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보였다. 서연이는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어디부터 손대야 할 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매의 정신·신체적 건강 상태도 우려되고 있다. 담임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서연이의 팔뚝에 난 자해 자국이 발견됐고, 항상 구걸을 해야 하는 현실에 우울증 증세도 보였다. 막내동생은 탈모 증상도 있었다.

가끔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잦았고, 어머니는 "너네들이 잘못 했으니 맞는 것이다"고 아버지 편을 들었다.

최근 서연이는 동생들과 떨어져 살아야 할 지 모른다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어머니는 서연이와 둘째에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집을 정리해놓으라"고 했지만 막내동생에 대한 말은 없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설에 뽕뽕이 흩어져 입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

다행히 서연이에게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 남매의 사연을 전해들은 광주시교육청, 광주남부경찰서, 구청 관계자들이 모여 6일 대책 마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단순히 일시적 자금 지원보다는 남매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생활 안정이 최선이라고 여긴 관계자들은 아버지도 회의를 불러 일자리를 알선할 예정이다.

가사도우미들도 모집해 정기적으로 남매의 집을 방문, 청소·음식 마련과 함께 정서적 교감 관계를 맺으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경찰은 부모에게 방임 또한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시킬 예정이다. 또 후원회를 조직해 서연이가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할 방안도 모색한다.

장경태 남부서 여성청소년계장은 "경찰·교육청 등 관련 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딱해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지원뿐 아니라 일상 생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차량 훔치고 털고...10대 일당 등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범죄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조모(22)씨 등 4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차량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 등은 SNS 통해 만난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9만원 어치를 구매하고, 광주시 동구의 한 금방에서 손금 20돈을 사려했으나 수상함을 느낀 주인이 판매를 거절해 미수액 그쳤다. 이들은 현금화가 쉽다고 생각해 금을

구매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산경찰도 이날 차량을 훔쳐 타고간 김모(16)군 등 미성년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6일 새벽 5시 40분경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K5 승용차를 대문까지 타고간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대문에 거주하는 김군 일행은 전북 정읍에서 훔쳐타고 온 SM5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 등이 훔친 승용차는 이틀만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돼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과 공범 한명은 다른 혐의로 현재 대전 경찰에 구속중이며, 경찰은 김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가하던 80대 노인,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겨

광주북부경찰은 5일 차량으로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모(28)씨와 송모(73)씨를 각각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로 문모(84)씨를

치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쓰러져 있던 문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혐의다.

문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문씨의 사인을 규명한 후 이씨와 송씨에 대한 혐의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합장 선거 역대 금품 돌린 후보자·조합 간부들 기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역대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수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74)씨와 조합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조합 임원들을 만나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총 1억여원을 건네고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들은 많게는 개인당 3000여만원을 받아 조합원 25명에게 각각 50만원에서 많게는 85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쪽선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한쪽선 압수수색

○광주시가 17년간의 노력 끝에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을 개최한 5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놓고 시청 안팎에서 "꼭 오늘 해야만 됐느냐"는 푸념 아닌 푸념이 터져나와 검찰이 당혹(?)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시청 앞 야외음악당에서 축하공연을 결정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는데,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4시 30여 분까지 광주시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것.

○이를 놓고 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

은 "시청 내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밖에선 기공식 축하 행사로 흥겨운 풍악이 울리거나 땀가 불뚱하고 어색했다"면서 "검찰이 꼭 이날 압수수색을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공식 일정을 알지 못했으며, 알았다더라도 압수수색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이 시청의 입장을 고려해 압수수색 박스 등은 기공식 행사가 끝난 뒤 검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승촌보 개방 피해 농가에 환경부, 900만원 배상해야

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농가에 환경부가 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환경부장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이 논의했다"며 "책임 범위를 따져 신청금액의 일부인 929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양측에 "승촌보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2m~2.7m 내려가 신청인의 소형관정(우물)으로는 미나리를 재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하수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보 개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5월에는 낙동강 합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경남 합안군 일대 농민 46명에게 환경부가 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같은 달 농민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농민이 적지 않아 이 같은 배상 결정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연남뉴스



나눔의 송편 빚어오 5일 광주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4층 강당에서 열린 '2019추석맞이 장애인 한마음 나눔행사'에서 주부 자원봉사단과 차량봉사단 회원들이 영세 중증장애인 가정 800여곳에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최혜배 기자choi@kwangju.co.kr

인권위 국민신문고 민원인 정보 유출 우려에 권익위 반박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광주일보 2019년 9월5일자 6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반박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미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앞서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전남도 산하 체육회 직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았다며 개인정보 공개 여부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는 일반민

원, 부패·공익신고, 갑질피해민원, 소극행정신고 등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있으며,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 민원 또한 부패·공익신고에 준해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자동표출, 민원인 개인정보 인쇄 차단 등 각종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